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5돐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혁명의  
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시조이신 절세위인을 사무치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그리며 추모하는 인민의 총정이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조국강산에 더욱 뜨겁게 차넘치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였다. 힘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 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  
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 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  
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금수산 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

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당중앙위원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회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  
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시였다.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재룡내각총리를 비롯한 조선로동당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과 정부의 간부들과 평양시안의 당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의  
중양지도기관 성원들, 당중앙위원 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  
회,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이 함께 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  
참가하였다.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생전의  
또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참 위원회의 공동명의, 조선민주주의  
가하였다.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면서 삼가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 인사를 드리시었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5돐 중앙추모대회 엄숙히 거행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5돐 중앙추모대회가 8일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조국과 혁명,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었다.

탁월한 사상과 령도, 희생적인 애국헌신으로 혁명과 건설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위대한 태양의 영광찬란한 력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더불어 끝없이 흐르고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그리며 따르는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추모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가장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인 김재룡내각총리가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당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일군

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나왔다.

추모대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 근로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연고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지부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참가하였다.

중앙추모대회 개최가 선언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장장 70살 상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와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그 어느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헌신적이며 성스러운 투쟁사를 수놓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의 험로역경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20세기 혁명운동사에 미증유의 커다란 자욱을 새기신 혁명의 대성인의 거룩한 한평생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였던 민족의 운명에서 근본적변혁을 안아오시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와 후손만대의 통성번영을 위한 고귀한 재부들과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며 어떠한 천지지변이 닥쳐와도 주체의 불변레도를 따라 곧바로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모든 영예와 위력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앙추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길이 받들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주적 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높이 자립, 자력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참가자들의 애국충정의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평화번영의 흐름을 주도 하시며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은 지난 모든 수뇌상봉의 역사를 뛰어넘을 세계적인 만남으로 전세계에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랜 대결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조미 두 나라의 최고수뇌분들사이에서 진행된 상봉과 회담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 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트럼프대통령이 남조선에 방문하는 기회에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데 대하여 수락하고 판문점 남측지역에 나가서 트럼프대통령과 전격적으로 상봉하시었다.

정전협정 이후 66년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세계가 지켜본다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는 첫 미국대통령으로 되라고 하시면서 트럼프대통령을 안내하시어 조미관계사에 처음으로 미국의 현직대통령이 공화국령토를 밟아보는 의미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조미최고수뇌분들이 판문점 방문리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역사적인 장면은 우리 겨레와 세인을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했으며 오랜 세월 적대와 대결의 잔해가 호르던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판문점은 조선반도에 펼쳐지고있는 평화번영의 흐름과 더불어 세인의 뇌리속에 깊이 새겨진 장소이다.

지난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판문점에서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과 두차례의 역사적인 수뇌상봉과 회담을 하시었다. 그 뜻깊은 나날 원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넘어선 분단선이 높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밟고지나다니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시었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분리를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 자유로이 넘나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으니 얼마나 뜻깊은 사변인가.

이것으로 하여 판문점은 우리 겨레의 마음속에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더욱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치체제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공로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지략과 대범한 도량에 의하여 금세기 최초의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있었으며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6.12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며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는 세인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조미관계와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이고도 정당당한 입장을 천명하시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기어이 안아올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미국대통령의 제의를 대범하게 수락하

시고 세인의 상상을 초월하여 과격적인 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누구도 상상 못했던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이 성사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수뇌상봉은 전적으로 긍정은위원장의 대담무쌍한 결단의 귀결이다.》, 《한반도정세는 김정은위원장의 결심대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역사적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세계 언론들도 《김정은위원장은 신속한 판단과 거침없는 결단으로 조미관계에 이례적이고 과격적인 사변들을 련일 이끌어내며 정치, 외교적리익을 극대화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의 (북조선입국)은 특기할 사변으로서 전적으로 김정은령도자의 견인력과 능란하고 매혹적인 외교술의 결실》이라고 평하였다.

세계가 공인하는 현세기의 가장 결출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제정치흐름을 자주와 정의, 평화로 이끌기 주도해나가기에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평화번영, 통일의 밝은 미래가 기약되어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우리는 제힘으로 얼마든지 살아 나갈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생애의 마지막날에 마친하신 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의 회의에서 하신 가르치심이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부강번영을 공화국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신심과 락관이 어리었다.

자기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것, 이것은 한평생 인민을 믿고 그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리로 이끌어오신 아버이수령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였다.

지난 세기 90년대 전반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경제의 생활과 잠재력을 더 높여 발양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국가의 경제전략을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7월의 무더위속에서도 경제부문 책임일군들의 회를 마련하시었다.

이제께서는 회의에서 전력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선박공업부문 등에서

이미 마련된 경제적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까운 앞날에 수행하여야 할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었다.

또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제재책동이 극도에 이를수록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경제부문 일군들이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날의 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하신 아버이수령님의 교시가 경제부문 일군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훈으로 되였다.

아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오늘도 이 나라 천만의 심장을 자력자강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구어주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지만 천재 인민은 자력자강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제건설대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의 신념을 지니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은 공화국인민은 자주권수호와 평화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계승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대전군에 나섰다.

천재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국가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해나가고 있다. 농민부문에서는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으며 공업부문에서는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만들어낸 각종 물건기계들과 정공업제품들의 질적수준이 한계단 도약하고 대량생산되어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속도에 도처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계속 일떠서고있다.

지난해만 보아도 삼지연군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을 비롯하여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립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됨으로써 사회주의조선의 역센 기상과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크게 과시되였다.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끄떡없고 멈춤이 없으며 더욱 승상구해나가고있는것이 자력자강으로 비약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의 현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라는 구호를 제시하시면서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자약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한해를 긍지높이 축하하면서 다시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것은 우리 국가가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 우리 인민의 역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수 있다는 진리라고 하시었다.

이제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도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공화국인민에게는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힘과 토대, 자기 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다.

자기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자력자강, 견인불발하여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우지 못한다.

우리는 제힘으로 얼마든지 살아나갈수 있다.

25년전 7월의 그날에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경제건설에 총체전하고있는 천재 인민의 애국의 발걸음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김영림

#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

## 몸소 싣고 오신 대형벽시계

주제102(2013)년 9월 어느날 이른새벽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또다시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문수물놀이장의 여러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러 새벽에 혼자 조용히 나왔다고 하시면서 차에서 내리시였는데 그이께서 타고 오신 차에 대형벽시계가 실려있었다.

며칠전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이곳을 리용하는 사람들이 시간가는줄 모르고 물놀이를 할수 있으므로 벽

면들에 시계도 설치해주어 시간을 알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대형벽시계를 자신께서 보내주었으니 설치해주라고 이르시었다. 그날에 하신 말씀을 잊지

## 미남자설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제105(2016)년 6월 어느날 평양공산공장을 찾으시였다. 내리는 비를 맞으시며 공장 곳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사랑직장에 들리시였다. 100% 국산화된 사랑생산설비에서 제품들이 나오는것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생산에 필요한

않으시고 이른새벽 차에 싣고 오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이 무렵까지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설장을 떠나시였다.

각종 콘베아들과 크고 육중한 가마들과 탱크들, 착유기 등 수십대에 100여대의 기계설비들이 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였었다. 생산설비들을 보고 또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설비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고, 이것이 바로 미남자설비이라고, 온 나라에 자랑하라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어머니는 자식의 응석과 투정을 나무람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준다. 그래서 어머니앞에서는 모든 어려움도 다 잊게 되며 사려깊고 주친한 사랑을 말할 때는 어머니사랑에 비겨 말하곤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의 마음속깊이 품고있는 속생각까지 자상히 헤아려 주신다.

몇해전 라선시 백학동에서 잇는 일이였다.

뜻하지 않은 큰물피해로 라선시의 인민들이 한치에 나앉게 되였다것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로 강력한 건설집단을 꾸려 내세우기 위하여 빨리 인민들이 살수 있는 새집들을 지어주도록 중대비상조치를 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은 긴장한 복주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방대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끝냈다.

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본래의 집에는 비할수 없는 화려한 집들이 즐비하게 일떠서자 한 주민은 새 집

# 다심한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부러워 보수해도 되는 자기 집을 계승으로 헐었다고 한다. 어느날 라선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를 믿고 투정을 좀 했데 뒤라가, 그들에게 당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였는것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 믿음을 지켜주는것

도 우리 당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하시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폭과 깊이를 알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인자함과 너그러움, 다심함에 있어서 그 폭과 깊이를 알수 없는 한없이 자애로

운 어머니의 사랑인것이다. 그러기에 한 비행사부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갖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스스럼없이 아뢰었고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새겨두시였다가 2014년 태양절에 열린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장에서 조선로동당을 따라 변함없이 총정의 길을 가라는 의미에서 아기이름을 《중도》라고 지어 주시였다.

그이의 다심하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그뿐이 아니다.

2012년 6월초 조선소년단 창립 66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 대회는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적인 2만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대회가 시작되전에 한 소년이 행사장에 나

라나 자기를 무작정 참가시켜달라고 떼를 쓰며 버티기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소년은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소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였는데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것이 아쉬워 무작정 기차를 타고 혼자서 평양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였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백리길을 달려온 당돌한 그 소년의 애라는 마음을 헤아리시어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하

시며 즉석에서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러하여 대회가 시작되기 10분전에 한 소년대표가 추가되는 상상의 일이 벌어졌다. 천만자식들을 사랑으로 품어안으시고 그 마음속에 간직된 작은 소망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정말 다심한 친어머니였다.

하기에 이 나라 남녀로 소 누구나 그이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뜻을 애국충정으로 받들고 따르는것이다.

친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를 넘어 멀어질 수 없이 련결된 령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사랑의 정기가 펼쳐지는 공화국에서만 존재하는것이며 바로 여기에 조선의 강대함이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다함없는 흥민의 마음을 담아

## 자개박이귀중품함

자개박이귀중품함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99(2010)년 4월 조선을 방문한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대표단이 올린 선물이다.

선물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수리아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여 있다. 디마스끄에서는 모자이크로 여러가지 가구들과 자개박이귀중품함을 비롯한 공예품들을 만드는 수공업이 발전하였다. 수리아사람들은 이것을 디마스끄의 유산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선물은 빛같이 고운 조가비조각과 지중해지역에서 나는 여러가지 질 좋은 나무조각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다. 선물의 길이는 31.5cm, 너비 22cm,



본사기자

# 세계에 유일무이한 위인칭송의 대보물고

##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해외연교자 가족들의 반향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해외연교자 가족들의 반향은 이렇듯 뜨거웠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군화화의 딸 장금복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만민의 뜨거운 지성이 깃든 수많은 진귀한 선물들을 고스란히 인민의 재부들로부터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공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는 그이를 칭송하는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흥모심이 깃들여있다고 말하였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군화화의 딸 장금복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만민의 뜨거운 지성이 깃든 수많은 진귀한 선물들을 고스란히 인민의 재부들로부터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김정은원수님의 위인적공모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국제친선전람관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위인칭송의 대보물고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비기지 못할 향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우리 일가는 주석님의 그 은정을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갈것이다. 중국항일혁명렬사장군화화 가족은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정은원수님께 계인민들이 올린 선물들을 보면서 그이는 과시 위인중의 위인이시구나 하는 감동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전통적인 충주전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 20m와 15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살피심이 깃들여있다. 그날 준비생산을 거쳐 기본생산에 들어간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라의 전문체 육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체육기재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 자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체육기재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설비와 원료, 자재의 품질이 국제적기준에 도달했을 때만이 실지 국산화하였다고 평가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체육기재공장에서는 절 좋은 체육기재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들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즐겨 찾게 하려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체육기재의 질을 높이는 문제 매우 중시한다고, 그렇기때문에 오늘 제품본실의 20m도 안되는 구간을 배 견본제품의 질을 가능해 보려면 15분동안 돌아보았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절 좋은 체육기재들을 더 많이 차려지게 하여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제품검사실을 돌아보시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체

## 20m와 15분

육기재들을 생산하기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체계를 세워 놓는데 대하여 대단하다고 평가하시였다.

공공품을 보시고도 통구였을 때 팔꿈치까지 튀어 올라와야 한다고, 일군들은 체육기재에 대한 상식도 알고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통구품을 보내주었으니 공장책임원들에게 대비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였다고 하시였다.

제품창고에 가득한 공물 보시고 공사태가 낫다고, 회한한 공정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평양체육기재공장이 일떠서으로써 우리가 만든 절 좋은

체육기재들을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였다. 전문체육부문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를 실현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체육기재들을 어떻게 하나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오늘 평양체육기재공장을 만족하게 돌아오았다고, 평양체육기재공장은 마음에 드는 공장이라고, 평양체육기재공장건설을 잘하였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제품의 질제고와 다량 생산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술이신 로고와 바치신 제품본실자신의 그 15분이 지금도 평양체육기재공장 생산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리 설



평양체육기재공장

# 민족대단결리념의 참 뜻

조국통일위업은 외세에 의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위업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주제적인 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면서 조국의 독립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오랜 투쟁속에서 마련된 민족대단결, 애국애족의 경륜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아가야 한다고,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걷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우리당의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라고 하시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이다.

공화국은 나라가 분열된 첫 시기부터 민족대단결리념을

내세우고 일관하게 견지하여 왔다. 외세와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던 1948년 4월 공화국은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소집을 발기하고 성사시켜 통일애국의 길에 뜻깊은 폐지를 장식하였다. 이 거족적인 통일회합에는 북과 남에서 무려 56개에 달하는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 695명이 참가하였다.

조국통일운동사에 빛나는 한페이지를 새긴 7.4공동성명의 발표도 공화국의 민족대단결리념이 구현되어 이룩된 경이적인 사변이었다.

그때 남조선 《정경》은 《반공》을 《국시》로 선포하고 동족대결정책을 오래동안 집요하게 실시해오고있었다.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떠들며 북침전쟁준비소동에 매달려 정세를 최대로 긴장시키고 간첩단사건들을 연이어 꾸며내면서 살벌한 공포와 대결분위기를 조성해왔다.

그러나 조국통일이 최대의 민족사적과제이기에 공화국은 넓은 야량과 확고한 통

일의지로 남측에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그 길에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쌍방고위급대표들사이의 회담도 마련될수 있었다. 그때 평양에 들어온 남측대표는 민족앞에 쫓겨있는 일을 많이 한 자기의 경력문제로 하여 북에서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한없이 뜨거운 민족애와 넓은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측대표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만나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오랜 시간 그와 담화하시면서 민족이 통일로 가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원칙들을 한조항한조항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세상에 태어날수 있는것이다.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넓은 품에 안아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민족앞에 불미스러운 인생경력을 가지고

있는 남녘과 해외의 각계인사들이 평양을 찾아왔고 민족단합의 대하에 합류하여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걷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것이 공화국의 민족대단결리념의 참 뜻이다.

성스러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공화국이 시종일관 구현하여온 민족대단결리념은 오늘도 변함없이 있다.

철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범한 결단과 넓은 도량으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성언을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놓으시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성언을 리행해나가는 여기에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평화변영,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 우리 겨레는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을 깊이 새기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 한사말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리은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6월 30일 판문점선언에서 미합중국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신 소식은 삼시에 조선반도와 전세계를 격정의 도가니로 끓게 하였다.

남조선의 많은 언론들과 정계와 학계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인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누구도 상상 못했던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이 성사될수 있었다고 격찬의 목소리를 터치었다.

당일인 6월 3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주변 장소는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시청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까라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이미 편성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소식을 《특별뉴스》로 전하였을뿐 아니라 상봉 전과정을 거의나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실황중계하였다.

특히 미국언론들은 당시 깊은 밤과 새벽임에도 불

구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관련한 소식을 3시간 이상 보도하였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조미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으며 오늘날도 정전상태에 있었다.

그 뿌리깊은 적대관계를 보여주는 판문점에서

》, 《평화가 지금이라도 금방 올것이다.》, 《70여년의 분단 세월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소식을 세계의 언론들이 특대보도하였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까라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이미 편성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소식을 《특별뉴스》로 전하였을뿐 아니라 상봉 전과정을 거의나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실황중계하였다.

기록되고 세인의 걱정은 고조되었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조미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으며 오늘날도 정전상태에 있었다.

그 뿌리깊은 적대관계를 보여주는 판문점에서

》, 《평화가 지금이라도 금방 올것이다.》, 《70여년의 분단 세월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소식을 세계의 언론들이 특대보도하였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까라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이미 편성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소식을 《특별뉴스》로 전하였을뿐 아니라 상봉 전과정을 거의나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실황중계하였다.

특히 미국언론들은 당시 깊은 밤과 새벽임에도 불

구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관련한 소식을 3시간 이상 보도하였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조미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으며 오늘날도 정전상태에 있었다.

그 뿌리깊은 적대관계를 보여주는 판문점에서

》, 《평화가 지금이라도 금방 올것이다.》, 《70여년의 분단 세월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소식을 세계의 언론들이 특대보도하였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까라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이미 편성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소식을 《특별뉴스》로 전하였을뿐 아니라 상봉 전과정을 거의나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실황중계하였다.

특히 미국언론들은 당시 깊은 밤과 새벽임에도 불

## 적대와 대결을 뛰어넘어

》, 《평화가 지금이라도 금방 올것이다.》, 《70여년의 분단 세월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소식을 세계의 언론들이 특대보도하였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까라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이미 편성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소식을 《특별뉴스》로 전하였을뿐 아니라 상봉 전과정을 거의나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실황중계하였다.

특히 미국언론들은 당시 깊은 밤과 새벽임에도 불

구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관련한 소식을 3시간 이상 보도하였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조미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으며 오늘날도 정전상태에 있었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소식을 세계의 언론들이 특대보도하였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까라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이미 편성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소식을 《특별뉴스》로 전하였을뿐 아니라 상봉 전과정을 거의나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실황중계하였다.

특히 미국언론들은 당시 깊은 밤과 새벽임에도 불

구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관련한 소식을 3시간 이상 보도하였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조미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으며 오늘날도 정전상태에 있었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수뇌상봉소식을 세계의 언론들이 특대보도하였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NHK방송, 까라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을 비롯한 주요외신들은 이미 편성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소식을 《특별뉴스》로 전하였을뿐 아니라 상봉 전과정을 거의나 실시간으로 빠짐없이 실황중계하였다.

특히 미국언론들은 당시 깊은 밤과 새벽임에도 불

구하고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관련한 소식을 3시간 이상 보도하였다. 세상이 다 아는것처럼 조미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로 되어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으며 오늘날도 정전상태에 있었다.

## 민족자주에 평화변영과 통일이 있다

최근 남조선의 각계층에서 민족자주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민중당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로총, 대학생진보연합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과 시청앞, 탑골공원 등 서울의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성명발표모임, 집회들을 벌였다. 부산과 대전, 경기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 지역들에서도 시위행진과 초불집회들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외세의 주권침해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고 민족자주, 평화변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다짐하였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권리를 가지고있다. 따라서 민족내부문제인 남북관계문제는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민족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길이다.

오늘날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묵인하고 그에 추종한다면 언젠가도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변영을 이룩할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벗어나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치 못한다. 이것은 지난날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란다면 좌고우면하면서 외세의 눈치를 볼것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과 근본리익을 찾기에 놓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서 북중시키는 원칙에서 북남선언리행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견지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 길에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평화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수 있는 담보가 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성언은 북과 남이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에서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 세상을 열어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선언,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지고 군사적긴장을 완화하여 평화와 안전의 새봄을 마련한 선언이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성언의 리행을 위한 투쟁을 벌이며 자

주통일의 길을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한다.

자주정신을 호리케 하는 사대적, 외세의존적자세가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해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공존과 북남관계발전의 추동력이라면 외세추종, 외세공조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장애물이다. 남조선당국이 무슨 문제에서나 미국의 눈치를 보는 대미추종자세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도 고립과 배척을 면할수 없고 북남관계의 밝은 앞날도 기대할수 없다.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길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자주를 떠나서 조국통일운동의 승리적전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자주에 평화변영과 통일이 있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의 길에 시련과 난관이 많더라도 하여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시련도 능히 극복할수 있으며 해결하지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한걸음이 떨쳐나설 때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아침은 앞당겨질 것이다. 장명혁



민족대단결은 위대한 길일성추적에서 한평생 견지하신 리념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에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보다 민족을 더 중시하시고 민족대단결로 자주통일을 안아오시려는 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가 어려웠다. 그이께서 온갖 정열을 다 기울여 저술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우리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민족대단결의 리념을 지니시고 그 실천을 위해 온갖 로고들과 바치신것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며 통일강국이라고 밝혀주시었다.

민족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그것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기때문이다.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수 없다.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

주체적통일력량이 든든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보장된다. 온 겨레가 뭉쳐서 통일대진군을 벌려라할 때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하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은 곧 통일강국이다. 민족이 힘을 합쳐야 통일도 오고 통일강국의 밝은 미래도 펼쳐질수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새롭게 펼쳐진 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민족분렬사상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국적인 사변들과 연속

속,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영, 공리를 도모해나갈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북과 남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었고 각종 추모들속에서 전례없이 고조된 통일열기는 통일조국의 밝은 매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의 차이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경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걷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북과 남은 접촉과 대화, 현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 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김정송

##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선생 평양 도착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일꾼들이 동료애의 정을 안고 맞이하였다. 그는 비행장에서 도착소식을 발표하였다. 최인국선생이 발표한 도착 소감발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오늘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

하여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애국의 넋이 깃들어있고 민족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조국,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된 지금 저의 심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양의 애국렬사릉에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이모할머니 이렇게 다섯분의 유해가 안치되어있습니다. 위대한 길일성추적님, 김정일장군님, 김정은국무위원장님께서 저

의 가정에 베풀어주신 대해 같은 사랑과 배려는 저의 할아버지에게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오늘까지 3대째 변함없이 이어져오고있습니다. 민족의 한울님, 구세제민의 태양이신 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기였기에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세상 만복을 다 누리며 통일애국성업을 여생을 바쳐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겨레가 대대로 안겨사는 품, 고마운 조국을 따르는 길이 곧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언을 지켜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에 늦게나마 공화국에 영주할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일흔오개를 넘었지만 저의 인생은 이제 첫 시작이라는 각오와 결심을 안고 부모님들의 곁을 유지대로 경애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의 명도를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바치는 남은 여생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사기자



##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강력한 추동력

수 없다. 민족대단결은 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의 대단결에 있다.

주체적통일력량이 든든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보장된다. 온 겨레가 뭉쳐서 통일대진군을 벌려라할 때 민족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

하기에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은 곧 통일강국이다. 민족이 힘을 합쳐야 통일도 오고 통일강국의 밝은 미래도 펼쳐질수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새롭게 펼쳐진 현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민족분렬사상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국적인 사변들과 연속

속,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영, 공리를 도모해나갈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다.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북과 남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었고 각종 추모들속에서 전례없이 고조된 통일열기는 통일조국의 밝은 매일

할 리유로 될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의 주의주장의 차이가 민족이 단결하는데 장애로 될수 없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경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실사 지난날 반통일의 길을 걷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에게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쳐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시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북과 남은 접촉과 대화, 현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통일애국의 한마음한 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서야 한다. 김정송

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북돋아주었다. 우리 민족은 지난해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통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우선시하고 그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쳐나간다면 마흔진 민족적화해와 자주통일의 대통령을 열어갈수 있다는 귀중한 철리를 배부르게 깊이 새기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같은 민족끼리 불신하고 대결해야

이 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은조선전선 및 현대성명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세계는 충격과 환희로 끓어번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구한 세월 끊임없는 반복과 질서, 적대와 위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핵전쟁의 불구름이 떠돌던 조선반도에선 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는다. 네팔조선전선협회, 네팔기

자협회,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조선통일촉진개발위원회, 네팔신군정지지협회,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선군정치연구회, 네팔문학단, 네팔전국기각자구락부, 주체사상연구회,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남조선과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은조선전선 및 현대성명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세계는 충격과 환희로 끓어번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구한 세월 끊임없는 반복과 질서, 적대와 위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핵전쟁의 불구름이 떠돌던 조선반도에선 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는다. 네팔조선전선협회, 네팔기

자협회,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조선통일촉진개발위원회, 네팔신군정지지협회,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선군정치연구회, 네팔문학단, 네팔전국기각자구락부, 주체사상연구회,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남조선과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은조선전선 및 현대성명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세계는 충격과 환희로 끓어번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구한 세월 끊임없는 반복과 질서, 적대와 위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핵전쟁의 불구름이 떠돌던 조선반도에선 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는다. 네팔조선전선협회, 네팔기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현대성을 보낸다

여러 나라 단체들 공화국의 정의의 위업 지지, 현대성 표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동기약》에 즈음하여, 르모니아, 네팔자치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타이에서는 토론회가, 기네에서는 현대성모임이 진행되었다. 로므니아조선전선협회는 성명에서 4.27판문점선언의 채택은 전세계 조선인민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판문점선언은 북남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놓았다. 조선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이 철저히 리행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자주, 민족자결, 민족대단합의 진심어린 호소에 호응하여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는다. 네팔조선전선협회, 네팔기

자협회,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조선통일촉진개발위원회, 네팔신군정지지협회,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선군정치연구회, 네팔문학단, 네팔전국기각자구락부, 주체사상연구회,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남조선과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은조선전선 및 현대성명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세계는 충격과 환희로 끓어번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구한 세월 끊임없는 반복과 질서, 적대와 위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핵전쟁의 불구름이 떠돌던 조선반도에선 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는다. 네팔조선전선협회, 네팔기

자협회,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조선통일촉진개발위원회, 네팔신군정지지협회,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선군정치연구회, 네팔문학단, 네팔전국기각자구락부, 주체사상연구회,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남조선과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은조선전선 및 현대성명회 위원장은 지난해에 력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세계는 충격과 환희로 끓어번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구한 세월 끊임없는 반복과 질서, 적대와 위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핵전쟁의 불구름이 떠돌던 조선반도에선 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는다. 네팔조선전선협회, 네팔기

자협회,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조선통일촉진개발위원회, 네팔신군정지지협회,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선군정치연구회, 네팔문학단, 네팔전국기각자구락부, 주체사상연구회, 네팔사회주의기자연단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대범한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4.27판문점선언과 6.12조미공동성명이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대해 강조하고 남조선과 미국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는 공화국의 역사에는 평양속도가 창조되던 잊을수 없는 날들도 새겨져 있다.

세상에 알려진바와 같이 1957년에 공화국에서는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났다. 최대한의 종산과 절약으로 부른 조선로동당의 진투적효소를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열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신과 기적으로 들끓었다.

그러나 건설에서만은 혁신이 일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건설부문의 이러한 실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도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시고 건설자들에게 들어가시어 그들을 새로운 혁신으로 불러일으키시었다.

어버니 수령님께서 1957년 1월 중순 건설부 지도인들과의 협의회를 지도하시는데 이어 평양시안의 실제인현의회, 건설부 지도인들과 평양시 건설부 지도인들과의 협의회를 지도하시었다.

## 평양속도의 창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실제 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해에 예견된 자재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는 살림집을 더 많이, 더 빨리 건설하자면 조립식건설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실제로 표준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건설부문의 모범로동자들을 부르시어 콘크리트부재를 만드는것을 결속으로 토끼를 만드는것과 리치는 같은것이니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장에서 생산하고 로선에서도 대대적으로 만들어 조립식부재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건설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건설자들은 이해 계획에 예견된 자재와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살림집을 지을 데대한 목표를 세우고 실제의 표준화, 부재생산

의 규격화를 실현하여 대담하게 조립식건설로 넘어갔다. 모든 건설자들이 불도가나마냥 부글부글 끓어 번지었다.

그러나 조립식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아니었다. 그때까지 보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부재를 규격화하고 공업화할데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있었으며 조립식시공방법을 신비하게 생각하면서 담석기공기를 대담하게 만들어 기공기에 의한 건설작업을 실현하지 못하고있었다. 더우기 공장건설, 다리건설에서 조립식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는데 한련 기계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조립식건설과 건설기술의 기계화에 필요한 기공기와 각종 건설기계, 많은 운수기계를 생산하여 보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그리고 모든 건설을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해내며 건설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건설에 대한 보고를 매일 밤마다 읽시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시었으며 취임없이 건설장들을 찾으시어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시었다.

그러하여 건설사업에서는 전례없는 대고조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건설자들은 살림집을 14분에 한세대로 조립하는 놀라운 속도,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당시 조선을 방문하였던 외국의 언론기관은 《평양에 10일간 체류하였는데 매일 다니는 길양옆에는 새로운 건물이 계속 일어서서 방향이 짐작되지 않아 나중에 혼자 다니는것이 근심이 될 정도였다. 당시 14분에 한세대로 주력이 건설된다고

은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열풍이 일어났고있는 속에 국제기종의 품질관리체계인증 받은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기자는 신영애 중앙품질인증소 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데서 품질인증이 노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신영애: 옳은 말이다. 품질인증이란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든 제품이나 생산공정 등이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것을 말한다.

품질인증은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검사와 그 제품과 관련된 품질관리체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단위에 《인증증서》를 발급해주고 《인증기호》를 사용할 권한을 준다.

품질인증은 우리 인민들에게 품질과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도록 자극한다.

공장, 기업소가 품질인증을 받으면 국제규격화기구가 제정한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 때만이 국제규격화기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부터 공장, 기업소들에서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과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도 품질인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품질인증은 세계적 추세로 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품질인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품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한 나라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에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나라들 사이에 품질인증을 호상승인하는 협정을 맺고있다.

이 과정에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해서는 세계의 모든 수요자가 인정한것과 같이 여기고 제품검사를 하지 않는 등 무역거래에서 특혜를 받게 된다.

기자: 국제기종의 품질관리체계인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신영애: 국제기종의 품질관리체계인증에는 품질관리체계인증(ISO 9001),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ISO 22000), 화장품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인증(ISO 22716),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인증(ISO 22000)을 받는다.

《통일신문의 맥주》로 소문난 대동강맥주도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있는것으로 하여 품질관리체계인증(ISO 9001)과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ISO 22000)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인정된 천연탄산광천수인 강서약수는 세계적저소유권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명명등록증서 받은 조건의 유명한 특산물들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평양수지연필공장,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로향주철직장, 봉화비누공장에서 수지연필생산공정, 주철생산공정, 빨래비누, 세척제생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인증(ISO 9001)을 받고 제품의 질제고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안아왔다.

평양326전선공장의 전력케이블생산공정, 대동강과일종합식품공장의 과일음료생산공정, 라선대흥무역회사의 수산물가공공정이 오랜 역사를 가진 권위있는 검사 및

관리체계인증(ISO 22000)을 받는다.

《통일신문의 맥주》로 소문난 대동강맥주도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있는것으로 하여 품질관리체계인증(ISO 9001)과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ISO 22000)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정성제약종합공장, 강계고려약공장, 화천고려약공장, 평천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하고 질풍은 의약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도 화장품생산공정, 사과생산공정에 대한 GMP, GAP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강합작회사에서는 의약품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한 GMP를 확립하고 국제표준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고는는데 그중에서 알레드로나트르코감약은 국제특허기술 제품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앞으로 품질관리인군의 한사람으로서 과학적인 품질관리질서와 검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해나가겠다.

말하고있었는데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는것을 직접 체험하였다.》라고 썼다.

세상사람들을 놀래친 평양속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또 하나의 빛나는 기록이었다.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속에 건설자들은 1958년 한해동안에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을 가지고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후 불과 1~2년 사이에 평양시에 더 많은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건설되고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섰다.

대동강가에 합각지붕을 높이 치고 대극장이 들어있었으며 장대재우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일떠섰다. 대동강유원지가 청룡비밀까지 꾸러지고 봉룡강유원지가 새로 생겨났다. 이때로부터 평양속도는 천리마속도와 함께 공화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현은경

## 자주는 공화국의 정치철학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비약적인 성과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정책이 낳은 필수적결이다.》,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자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조선은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류의 회합의 등대로 되고있다.》... 자주로 존엄하고 자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용과 기상은 국제사회계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자주는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공화국은 자주의 로선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

공화국은 자주를 국가건설의 근본적으로 삼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대외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주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가 더욱 세차게 나부끼게 한 활동에서 나서는 것이다.

이 투철한 진리를 새겨안고 공화국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계급투쟁의 열풍이 불어닥치는 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국가발전의 길로 꾸준히 전진하여왔다.

김소영

적지 않은 나라들이 큰 나라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세브에 들어갈 때에도 자주성을 버리고 남의 그늘밑에 들어간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경제건설로선을 견지하여왔다.

공화국이 전후 제타미를 헤치고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고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화국을 완성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치는 적대세력들의 봉쇄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여올 수 있는것은 자주를 생명으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결과이다.

하기에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나가라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라는 전략적호를 제시하신것은 그이의 투철한 자주정신의 뚜렷한 과시였으며 이 땅에서 주체의 기치, 민족자주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가 더욱 세차게 나부끼게 한 뜻깊은 계기로 되었다.

오직 우리 식대로! 이 투철한 진리를 새겨안고 공화국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계급투쟁의 열풍이 불어닥치는 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한 국가발전의 길로 꾸준히 전진하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오는 공화국은 자주의 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다.

공화국은 지리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위치해있고 나라가 분열된 속에서도 적대세력들의 갖은 제재와 압박을 받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해오고있다. 지역적, 세계적범위에서 패권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모순과 대결도 한층 격화되고있다.

이런 특수한 환경과 복잡한 세계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은 확고한 자주적립장에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고있다.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어도 공화국처럼 대국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의 원칙과 리익을 당당히 고수해나가는 나라는 없다.

공화국은 앞으로 동풍이 불어오든 서풍이 불어오든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는 나라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라함도 하지 않을것이며 모든것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자기의 강,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갈 것이다.

## 국제인증 받은 제품 날로 늘어나

신영애: 옳은 말이다. 품질인증이란 공장, 기업소들에서 만든 제품이나 생산공정 등이 규정된 요구조건을 만족시킨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것을 말한다.

품질인증은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검사와 그 제품과 관련된 품질관리체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단위에 《인증증서》를 발급해주고 《인증기호》를 사용할 권한을 준다.

품질인증은 우리 인민들에게 품질과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도록 자극한다.

공장, 기업소가 품질인증을 받으면 국제규격화기구가 제정한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 때만이 국제규격화기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부터 공장, 기업소들에서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과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도 품질인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품질인증은 세계적 추세로 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품질인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품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한 나라를 벗어나 국제적 범위에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나라들 사이에 품질인증을 호상승인하는 협정을 맺고있다.

이 과정에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대해서는 세계의 모든 수요자가 인정한것과 같이 여기고 제품검사를 하지 않는 등 무역거래에서 특혜를 받게 된다.

기자: 국제기종의 품질관리체계인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신영애: 국제기종의 품질관리체계인증에는 품질관리체계인증(ISO 9001),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ISO 22000), 화장품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인증(ISO 22716),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체계인증(ISO 22000)을 받는다.

《통일신문의 맥주》로 소문난 대동강맥주도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있는것으로 하여 품질관리체계인증(ISO 9001)과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ISO 22000)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정성제약종합공장, 강계고려약공장, 화천고려약공장, 평천고려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공정의 GMP화를 실현하고 질풍은 의약품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신의주화장품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서도 화장품생산공정, 사과생산공정에 대한 GMP, GAP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강합작회사에서는 의약품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한 GMP를 확립하고 국제표준에서 의약품을 개발하고는는데 그중에서 알레드로나트르코감약은 국제특허기술 제품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앞으로 품질관리인군의 한사람으로서 과학적인 품질관리질서와 검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해나가겠다.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인정된 천연탄산광천수인 강서약수는 세계적저소유권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명명등록증서 받은 조건의 유명한 특산물들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평양수지연필공장,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로향주철직장, 봉화비누공장에서 수지연필생산공정, 주철생산공정, 빨래비누, 세척제생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인증(ISO 9001)을 받고 제품의 질제고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안아왔다.

평양326전선공장의 전력케이블생산공정, 대동강과일종합식품공장의 과일음료생산공정, 라선대흥무역회사의 수산물가공공정이 오랜 역사를 가진 권위있는 검사 및



더 많은 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는 근로자들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력기감독

자들을 키워내어 공화국의 영예를 떨친 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김춘희를 《통일신보》가 만났다.

특상선수로부터 력기선수로

열정을 발산하는 눈빛, 크지 않은 키, 청춘기력 력기경기관에서 만난 김춘희감독

자들을 키워내어 공화국의 영예를 떨친 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김춘희를 《통일신보》가 만났다.

특상선수로부터 력기선수로

열정을 발산하는 눈빛, 크지 않은 키, 청춘기력 력기경기관에서 만난 김춘희감독

목인 력기를 꽤 해내겠느냐 하는 리유에서였다. 그러나 력기에 마음이 끌린 그는 특상종목으로부터 력기종목으로 전공을 바꿨다. 부모들이 력기를 전공하는 말을 지지하게 된것은 그가 조선체육대학에 다니던 나날 잊은 전대학생체육경기대회 력기경기종목에서 1등을 한 때 부터였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청춘기력 력기경기관 청소년체육학교(당시) 력기지도교원으로, 몇년 후에는 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이 되었다.

《10살 난 정심이를 본 순간 력기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속도, 조약 등 여러 측면에서 축구를 해보았는데 확실히 자기 포대의 선수들보다 지료가 높았다. 그렇다고 력기선수로 꼭 성공할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웠다. 노력이 없는 열매를 바랄수 없듯이 퍼라는 훈련이 없이 성공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김춘희감독의 노력은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소년단 베타이를 맨치 몇해 안되어

나 그의 금메달은 가야금 타던 동생 은심도 력기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동생 림은심심수는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와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얼마전에 있는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림정심, 림은심 자매선수들이 아시아선수권을 보유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이들만이 아니라 려은희, 김은주, 최효심, 박진혜선수를 비롯하여 국제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자력기선수들도 김춘희감독이 선발하고 키워낸 선수들이다.

▶ 세계적인 력기강자들을 키워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싶다.

《적성체질을 가진 선수들을 선발하는것,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도입하는것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수들의 정신력을 발달시키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순일에서나 정신력이 중요했처럼 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림정심, 림은심 자매선수들이 아시아선수권을 보유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림정심 심수가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올렸었다.

세계적인 력기강자들을 키워내는 김춘희감독, 그는 행복한 력기감독부부와 함께 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으로 사업하고있다. 이 둘부부는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위치한 체육인살림집에서 살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부부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편도 선수생활기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인민인민칭호를 받았다. 김춘희감독은 훈련장에서 엄격하지만 가정에서는 8살 난 아들 유성이가 2살 난 아들 유일이의 응석을 곧 잘 받아주는 다정한 어머니이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김춘희 감독과는 달리 내성적인 성격의 임용수감독은 응심깊은 마음으로 늘 안해를 위해주고 도와준다고 한다.

임용수감독은 안해가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날부터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영웅 메달을 단 옷을 입고 다니라고 하면서 성화를 먹고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집에는 한 벽면이 영광의 기념사진들로 꽂차 있다.

주제 101(2012)년 10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30차 올림피경기대회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신 선수들과 감독들을 친히 만나주시 영광의 자리에는 김춘희감독도 있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체육인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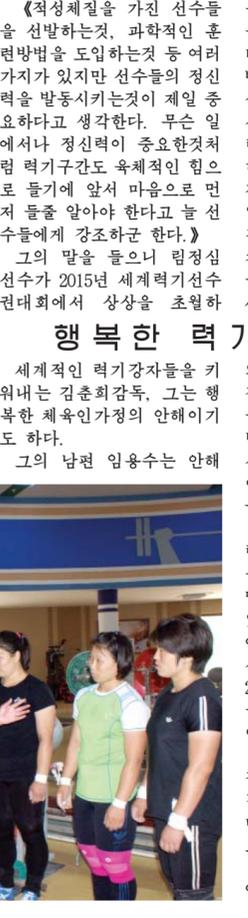
뜻깊은 기념사진들가운데는 이들부부가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평범한 나를 세계와 밀고 조국이 기억하는 명감독으로 되게 하였다. 나에게는 우리 선수들이 들어올리는 력기 구간이 단순한 청머머리로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에 조국의 영예가 있고 공화국기갈에 다진 우리의 맹세가 있다.》

세계를 향한 김춘희감독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여자력기계의 패권을 쥐기 위한 전도양양한 후비들을 키워내는것, 이것이 그의 야심만만 목표이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그의 모습에서 국제무대에서 계속 휘날리게 될 람송색공화국기를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김춘경



첫 경기에 참가하였던 정심이는 벌써 너자력기 48kg급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다.

림정심심수는 2012년 영국에서 진행된 제30차 올림피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였다. 폭발적인 힘과 빠른 순간력, 재치있는 려력동작, 림정심심수의 경기장면은 력기 전문가들과 관람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올림피경기대회 력기 사상 10대의 나이에 금메달을 쟁취한 너자력기선수는 없었다.

림정심심수는 제31차 올림피경기대회에서도 우승하여 2중올림피금메달수상자로 이름을 떨치었다.

력이에 대한 림정심심수의 뜨거운 애착과 나날이 늘어나는 그의 금메달은 가야금 타던 동생 은심도 력기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동생 림은심심수는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와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얼마전에 있는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도 림정심, 림은심 자매선수들이 아시아선수권을 보유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이들만이 아니라 려은희, 김은주, 최효심, 박진혜선수를 비롯하여 국제경기들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자력기선수들도 김춘희감독이 선발하고 키워낸 선수들이다.

▶ 세계적인 력기강자들을 키워내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싶다.



### 력기강자들을 키워내는 비결

자매합작소 소문난 림정심, 림은심선수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바로 김춘희감독이 키워낸 선수들이다.

그가 력기감독을 하면서 제일 품을 들인것은 선수선발이었다. 그는 학교들에서 벌어지는 운동회와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운동장 지어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까지 다 찾아다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우연히 정심이와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첫눈에 정심이가 력기로 성공할수 있는 적성체질이라는것을 알아본 그는 정심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정심이는 앞으로 꼭 훌륭한 력기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정심이를 저에게 맡겨



#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지난 10일 남조선의 민족 화해협력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서울에서 주최한 통일정책관련연단에서 당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지금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예전처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발전이 종속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견인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민족 내부문제는 남북이 북미관계의 진전과 상관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당당한 말이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 민족내부문제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외세의 눈치를 보면서 《제재의 틀안에서의 남북관계 진전》과 같은 밧도 아닌

고 죽도 아닌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관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북남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이 북남선언들이 채택된 때로부터 많은 시일이 흐른 오늘까지도 팔수에 배인 친미사대적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다.

북남관계문제에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이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

는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외세는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자세와 립장을 두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가 결정한다는 북남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대한 포괄적인 부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달려있는 북남관계문제를 외세의 통각물로 내맡기는 매국배주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겨레의 목소리는 말해주고 있다. 북남관계는 그 무엇에도 종속될 수 없으며 북남선언들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내부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평화변영과 통일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본사기자 김철민

# 시대밖으로 쫓겨나 발악한다

《위대한 순간》, 《력사적인 사변》, 《60년 넘게 한반도를 지배해온 령전체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중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한 신호탄》...

이것은 역사를 뛰어넘을 세기적인 만남, 조미 두 나라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한 특대사변인 판문점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격찬이다.

하지만 유독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만이 별레셋은 상동을 해가지고 조선반도와 온 행성을 격동시킨 세기적 사변의 의의를 깎아내리려고 양양불락하고 있다.

그 무슨 《툼미봉남의 시대》가 열렸다. 《아무 성과도 없는 쇼(보여주기)에 불과하다.》, 《찬가》와 호평의 성찬에만 휩쓸려서는 안된다.》 등 속이 뒤뜰린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우물안의 개구리에겐 하늘이 돈있만하게 보인

다더니 평화와 번영, 통일로 향한 겨레의 지향과 시대적호를 조급도 인식하지 못하는 청맹과니, 무지렁이들이 분명하다.

아마 그들에게는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을 보며 짓던 겨레의 환한 웃음이 저들의 머릿통에 멀어지는 번개처럼 보였을 것이고 《위대한 력사적순간》, 《새로운 시대의상징》,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의 획기적인전진》, 《평화의 진전》이라는 겨레와 세인의 목소리가 《자한당파벌》, 《보수파벌》이라는 퇴성으로 들렸던 모양이다.

얼마나 얼흔이 나갔던지 구세주처럼 여기는 미국에 대고 불평, 불만을 해내는 자들도 있다.

평화분광자의 《함의침막》과도 자진철폐하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영행사를 벌인 저들을 본적도 안한데 대한 앙탈만이 아니라 친미로 부지하고 대결

과 분렬에 기생해온 더러운 진명을 기델 곳이 없게 되었다는 허탈과 절망, 급격히 도래하는 평화시대에 저들의 생존공간이 더는 있을수 없다는 공포감에 의한 단말마적인 몸부림인 것이다.

세계가 격찬하는 력사적사변에 흠칠을 해보려는 남조선구우보수세력의 동족대결양심, 영구분렬망상은 이처럼 뼈속까지 절어있다.

개들이 아무리 발버둥치며 짖어대도 행렬은 가기 마련이며 췌진 남파작같은 대결론리로 평화로 향하는 민심의 대하, 시대의 격류를 막을수는 없다.

격랑을 일으키며 내달리는 민족의 대행진은 《자한당》과 같은 민족의 암적존재, 친하의 쓰레기집단을 시대의 기습파로 내던지며 평화와 통일, 번영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김정혁

남조선인민들이 일본상품을 《안사고, 안파는》 불매운동을 벌리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이에 대한 글들이 퍼져나가고 많은 상업기관들에서 일본상품판매를 중지하였다고 한다.

각계층 시민, 사회단체들은 《대화는 거절하고 배상은 외면하더니 보복조치까지 하는것은 비렬한 망동이다.》, 《일본으로부터 강제적인 사죄, 배상을 받기 위한 항의행동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일본상품불매운동에 열기해나서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운동을 《어린애같은 자존심》이라고 비방하며 가로막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다름아닌 《자한당》 패거리들이다.

대표라는 황교안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침략》으로 규정한 《정부》와 여당에 《의병을 일으키는 식》이라고 샅대질하고 원내대표 라경원은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꾀를 늘어놓았는가 하면 대변인이라는 자역시 《게으른 농부의 꼴》이라고 야유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벌리는 일

심에 대한 분노와 항거의 분출인 것이다.

그런데 그에 호응하지는 못할망정 민족적존엄을 모독하는 아베일당의 책동에 동조하는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이야말로 외적의 침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것과 같은 쓸개빠진 망동이라고 무엇인가.

일본이 뻔뻔스럽게도 조선인 강제징용문제, 일본군성

우리 민족에게 친추에 썩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사회와 배상은커녕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던 일본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남조선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얼마전 남조선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행태가 가득이나 경제위기에 몰려 허덕이는 현 남조선당국과 남조선인민들에게 심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다.

과거죄악을 치졸한 방법으로 회피해보려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위는 죽시에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와 같은 대학생단체들과 반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여 침략범죄에 대해 인정조차 하지 않는 일본과는 협의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사회와 배상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죄악정산을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를 천명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제2의 항일운동을 벌리자!》, 《일제의 강제동원사죄배상하라!》, 《전반기업불매운동에 나서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일본령취소, 일본상품불매운동을 벌리고 있으며 시위, 집회를 비롯한 각이한 형태의 투쟁들을 벌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도 있다. 《자한당》 패거리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마치 현당국에 있는듯이 외곡해나서는 가 하면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대표 황교안은 《여당에서 부라부라 특별위원회를 만든다 하는데 의병을 일으키는 식의 감정적주장을 내놓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연 이 시점에

# 민심에 역행하는 친일매국당

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면서 남조선 각계층의 정당한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원내대표 라경원 역시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 걱정스럽다.》, 《초강경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감정 부추기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면서 친일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자한당》 패거리들속에서는 남조선주재 일본대사를 만나서 가 하면 지어 《징용피해자들이 직접 청구하는것을 정부가 맡아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는 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그후에 특별법 같은것을 만들어 처리하면 어떻겠냐 생각한다.》고 하는 등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것을 주장해나서는자들도 있다.

지금 적지 않은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남조선반도체산업에 대한 일본의 제재조치가 남조선경제와 기업에 타격을 주어 남조선을 길들이고 우익세력의 지지를 얻어보려는 아베일당의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도발로 보고 있다.

실지로 일본의 정계원들과 주요언론, 학계 및 경제계의 전문가들속에서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자국기업에 역풍을 몰아오는 《어리석은 처사》, 《무분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울려나오고 있다. 일본언론들은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이를 7월 21일 진행된다는 합의원천거에 써먹을데 대한 지침까지 내린것은 아베가 선거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복음》을 조성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폭로하고 있다.

형편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세력이 그 무슨 《대일의교참사》, 《감정적주장》, 《무책임한 부분》 등 어찌고 저찌고하는것은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위에 맞장구를 치는 역적행위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자한당》은 력대로 친일배주행위만을 일삼아온 역적당이다.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파거를 묻지 않는 일본과의 신허력시대》와 《실용의교》를 떠들며 친일사대매국행위에 열을 올린것도 그리고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일본의 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고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인 해결》을 떠든것도 다름

아닌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이었다.

이런 친일매국의 력사를 가진 《자한당》이기에 오늘날은 도적이 맬를 드는 격으로 돌아대는 일본에 단호히 맞설 대신 도리어 아부와 굴종을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저들의 재집권 야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한당》이 의도적으로 현 남조선당국과 일본집권세력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격화시키고있다고 하고 있다.

저들의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친남조선적과 서슴없이 아합하는 친화적 무리, 《용사오적》을 무색케 하는 《자한당》이야말로 민족의 더없는 수치가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박철남



# 《합의리행》의 막뒤에서 계속 칼을 간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좋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15일 남조선공군에 실전배비될 스텔스전투기 F-35A 2대가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에 납입된다고 한다.

지난 3월에 정주공군지대에 이미 2대가 반입된 F-35A 스텔스전투기는 10월에 4대, 연말까지 추가로 최대 8대를 더 끌어들이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남조선공군은 연말이면 스텔스전투기

F-35A를 최대 16대 보유하게 된다.

또한 고도 20km 상공에서도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수 있는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2대가 오는 9월 처음으로 남조선군에 반입되게 된다. 이어 10월과 11월에 각각 1대씩, 올해에 모두 4대가 들어온다는 사실도 공개되었다.

이것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반복한 위반이며 북남화해와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다.

알려진것처럼 《F-35A》 도입계획은 박근혜보수패당이 2014년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대북선제타격체계》인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2021년까지 미국의 록히드 마틴회사로부터 40대를 구입하기로 한 도발적인 무력증강계획이다.

이 계획은 박근혜보수패당의 대결책동의 산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제거를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

되고 그것을 철저히 리행해야 할 오늘에 와서까지 케케묵은 대결시대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것은 북남관계의 파국과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한 과거 보수집권세력들의 무모한 망동과 다른 것이 없다.

속이 풀은 칼을 버리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에서 진정한 화해와 북남관계발전을 이루어나갈수 없다.

이것은 품질많은 북남관계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것처럼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제거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장혁철



노예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배정을 부리며 오만방자하게 경제적압력까지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는것이 과연 누구에게 큰 책임이 있는가. 일본의 피비린 과거죄악에 눈을 감고 재침의 명석을 깔아주어온 《자한당》의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65년 《유신》 독재자는 《일본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돼이 없다. 제2의 리완용이 되고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협정은 꼭 체결하겠다.》고 떠벌이며 몇푼의 돈을 받고 일제의 과거죄악을 덮어주는 엄청난 친일역적행위를 하였다.

《쫓기야마 아끼리로》로 불리며 《일본녀성의 몸에서 빠져나온 사생아》라는 추문이 따라다닌 리명박은 《미래지향관계》를 운운하며 선임독재자들도 감히 넘겨다보지 못한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날뛰었다.

《유신》 악녀 역시 일본군성노예죄악을 풀것으로 꿈때

# 《일본의 대변지》-보수언론

그런데 기이하게도 남조선에서는 보수언론들이 나서서 아베당국의 경제제재조치를 저주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조선당국을 비난하는 황당 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한일관계악화의 책임은 청와대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 《큰 소리 쳤지만 허를 찔린 정부》, 《반일은 북한 리름게 한다.》는 제목의 기사들을 내고있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어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일본이 저들이 제재책동을 합리화하려고 꾸며낸 반공화국날조주

부품을 공급하는 무역관계이기때문에 일본기업의 피해가 크다.》며 제재조치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지어 일본은 구우보수신문인 《산케이》조차 《일본전자업체의 생산계획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본당국에 신중성을 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무에서 불질을 일으킨 당국의 수출규제에 대하여 비판한 글들중의 일부이다.

도 그대도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태는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야말로 사회제정의와 객관성, 공정성을 추구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민족의식이 송두리째 사라진 사이비언론, 친일매국지라하는것을 그대로 시사해준다.

선지때마다 자기에게 쏠리는 비난의 목소리를 외부로 돌려 인기를 올리는것이 현 일본당국의 상투적수법이다. 이것은 일본의 정치전문가들이 여러차례의 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러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지잖은 일본을 규탄할 대신 《아베찬가》를 공공연히 부르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얼빠진 추태는 일본의 침략책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서 민족의 피가 끓게 하는 친일반역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의 행위는 지난 세기 일제강점시기에 《내선일체》를 선포하며 조선의 청장년들을 일제의 전쟁터로 내몰고 왜왕에 대한 《충성》을 설교하던 이 언론들의 과거 추악한 친일반민족행위의 복사판이다.

조상들의 친일매국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는 이런 보수언론들을 남조선민심은 기레기(기차+쓰레기)의 합성어로 저주하며 등을 돌려버리고 있다.

민족의 편에 서지 않고 친만부당한 일본의 역성만 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차라리 신문제목에 《일본의 대변지》라고 큼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